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32**  
JUNE 19 2020

발간년월 2020년 6월 19일 (통권 제132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 영 태 총괄 이 주 호 감수 최 재 선 담당 김 엄 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 주요 동향

- 러시아 교통부, 복합운송 관련 개정 법률안 제정 준비 완료
- 러, 사기업 및 외국기업에도 북극 대륙붕 자원개발권 허용 계획
- 보스토치나야 하역회사, 보스토치니항 보세창고 운영 개시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불쇼이항, 종합 터미널 신축 계획
- 러 원자력 컨 쇄빙선, 세브모르푸츠호 겨울·봄 시즌 항해 종료
- 러 노보로시스크 항,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조치 시행
- 러시아,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 피해 확산 막기 위해 총력

## 주요 통계

- 2020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 주요 동향



### 러시아 교통부, 복합운송 관련 개정 법률안 제정 준비 완료

#### ■ 러시아 교통부는 복합운송 관련 개정 법안을 공청회에 제출함

- 2018년 교통부는 복합운송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통과시키지 못함
- 당시 경제개발부는 복합운송 관련 사안은 운송자와 포워더 간 계약관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별도의 법안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음
- 교통부는 이 법안을 1996년부터 민법에 추가하고자 했지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통과되지 않았음

#### ■ 이 개정 법안이 통과 돼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복합운송 시 생길 수 있는 관계자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임

- 개정 법안에 따라 복합운송화물인도증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각 운송수단별로 환적할 때마다 서류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게 됨
- 교통부는 이 복합운송화물인도증서 양식을 만들었으며, 총 6장으로 구성된 서류를 도로청, 컨테이너 및 교통청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환적데이터, 화물처리지점 관련 데이터, 각 운송구간별 물류비 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 이 복합운송화물인도증서를 통해 화물운송비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됨

#### ■ 이번 개정 법안에 따르면, 복합운송에 참여하는 운송사들의 의무사항 및 책임, 물류비 산정 방법, 화물운송(환적) 절차, 화물수령인의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특별계약을 작성해야 함

- 2018년 개정안에도 특별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작성 규정은 없는 상태였음
- 이 개정 법안에 따르면 화물 발송인, 운송사, 화주가 특별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직접적인 계약자인 운송사 A와 B사를 후속(순차) 운송사(subsequent carriers)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B사에 대한 의무사항 역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이번 개정된 법안에 추가된 부분임

## ■ 그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발송인 및 화주가 총 거리에 따른 운송비를 직접 부담하고, 기타 비용(환적, 상하차, 보관)은 해당 업체와 따로 비용처리를 하도록 함

- 계약서를 체결한 주요 운송사 A는 화물손상 및 배송오류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으며, 운송사가 우선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후속 운송사 B사나 C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2018년 개정안에 따르면 최종 목적지로 배송하는 운송사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을 경우 전체 운송비에서 각각 운송사 A, B, C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반면 이번 개정안은 각 운송사별 책임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 안드레이 술라(Andrei Sulla) AsstrA 철도운송부장은 복합운송 참여자 간 관계를 정립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안드레이 술라 철도운송부장은 복합운송의 가변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종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설명함
- 단, 복합운송화물인증서 제도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어 서류작업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러시아 국내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용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 참고자료

- a) [http://vch.ru/event/view.html?alias=ministerstvo\\_transporta\\_dorabotalo\\_zakonoproektosmeschannyh\\_perevozkah](http://vch.ru/event/view.html?alias=ministerstvo_transporta_dorabotalo_zakonoproektosmeschannyh_perevozkah)(2020년 6월 17일 검색)

## 러, 사기업 및 외국기업에도 북극 대륙붕 자원개발권 허용 계획

###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개발부는 러시아의 북극 및 극동지역 대륙붕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투자사업 모델이 포함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sup>a)b)</sup>

- 서시베리아 유전의 생산량 감소를 보충할 새로운 자원산지 중 하나로 북극 및 극동지역의 대륙붕이 주목받음에 따라 이 광대한 자원매장지의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및 기업활동 촉진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이 법안은 우선적으로 러시아 연방이 주식을 모두 보유하는 극동 및 북극 개발관련 기관 또는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VEB)이 유일한 주주로 참여하는 사업체가 러시아령 북극 및 태평양 대륙붕의 자원개발 전권을 보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와 함께 대륙붕 개발사업의 실현과 기반시설 및 산업설비의 확충, 환경보호,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출지원을 위한 투자를 담당할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됨

### ■ 북극지역 또는 극동연방관구에 속하는 러시아 연방주체 내에 등록된 러시아 법인 또는 외국계 법인의 자회사는 대륙붕 개발에 공동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음

- 한편, 이 법안에는 컨소시엄 협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요구사항 및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임. 예컨대, 러시아 정부 또는 대외경제개발은행은 컨소시엄을 통해 운영될 사업체의 지분을 25.1%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함
- 이러한 컨소시엄에 참여할 민간투자자들은 지진활동조사와 시추조사를 반드시 포함하는 8년간의 지질조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 지질조사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대규모 자원매장지를 발견할 경우 자원 조사권은 시추권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30년 동안 자원탐사 및 시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그러나 이 법안을 통해 부여되는 권한의 행사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할당되지 않은 구역에만 국한되며, 3년간 조사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시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음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개발부는 이전까지의 성공적인 대륙붕 개발 경험에 기초하여 법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지하자원, 대륙붕, 가스공급과 관련한 법률들과 연방 예산법도 개정될 예정임

### ■ 나아가 이 법안에는 대륙붕 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와 민간투자자들의 협력수준을

## 제고시킬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임<sup>a)b)</sup>

- 현재까지 준비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담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투자지역 선정에 필수적인 지리적·기술적 정보를 제공받고 투자희망 지역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와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감독위원회가 러시아 연방 부총리가 주관하는 협의체의 형태로 구성될 계획임.
- 이 위원회에는 러시아 에너지부, 재정부, 경제발전부, 천연자원부, 산업통상부, 극동시베리아 개발부 등이 참여하며, 대륙붕 개발전략, 예산, 사업의 우선순위, 컨소시엄의 규모 및 일회성 지불규모를 결정하고, 채굴될 자원의 이용권 분배와 관련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예정임

이준용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charmant9430@hufs.ac.kr)

---

### 참고자료

a) <https://minvr.ru/press-center/news/25445/>(2020년 6월 14일 검색)

b) <https://tass.ru/ekonomika/8682639>(2020년 6월 14일 검색)

## 러 보스토치나야 하역회사, 보스토치니항 보세창고 운영 개시

### ■ 보스토치나야 하역회사, VSK(Global Ports 그룹 소속 하역)가 3년 동안 관세 및 세금 부과 없이 수출입품을 보관이 가능한 보세창고 운영을 개시함

- 창고의 실외 유효면적은 175m<sup>2</sup>, 실내 유효면적은 1,239m<sup>2</sup>이며, 통관 절차 또한 보세창고에서 밟을 수 있음
- 알렉세이 파블렌코(Aleksei Pavlenko) VSK 상무이사는 보세창고에서 라벨링 작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그는 이번 보세창고 운영을 통해 회사 밖의 창고로 상품을 옮길 필요가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라벨링 대상 상품종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함

그림. 보스토치니 터미널



자료: <https://seanews.ru/2020/06/04/ru-vsk-otkryla-tamozhennyj-sklad/>

### ■ 보스토치나야 하역회사, VSK 터미널은 극동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요 터미널 중 하나임

- 터미널 수용 능력은 연간 65만 TEU임
-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CIS국가, 유럽, 중국 등으로 가는 컨테이너고속철도를 터미널에 설치 중임
- Global Ports 그룹은 러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이며, 델로(Delo)그



룹과 APM Terminals B.V.가 각각 30.75%, Free Float가 20.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GDR(해외주식예탁증서)는 런던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됨

\* 델로 그룹은 2018년 Global Ports의 30.75% 지분을 매입했음

- 세르게이 시슈가레프(Sergei Shishkarev)가 30%, 로사톰이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델로(Delo) 그룹은 러시아 최대 물류회사 중 하나로, 컨테이너 터미널 “NUTEP”, “KSK” 곡물터미널을 소유하고 있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

#### 참고자료

- a) [http://vch.ru/event/view.html?alias=stividor\\_global\\_ports\\_v\\_primore\\_otkryl\\_v\\_portu\\_vostochnyi\\_tamoghennyi\\_sklad\\_hraneniya\\_tovarov\\_bez\\_uplaty\\_sborov\\_i\\_nalogov](http://vch.ru/event/view.html?alias=stividor_global_ports_v_primore_otkryl_v_portu_vostochnyi_tamoghennyi_sklad_hraneniya_tovarov_bez_uplaty_sborov_i_nalogov)(2020년 6월 17일 검색)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항, 종합 터미널 신축 계획

## ■ 러시아 국가감정위원회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항의 새 터미널 건설을 위한 1단계 프로젝트를 승인함

- 러시아 국가감정위원회(Moscow State Expertise) 위원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항 터미널 건설 1단계 진행을 위한 설계도 및 공학조사(engineering survey) 결과를 승인함
- 1단계 프로젝트는 선박 입항, 적재 및 하역, 그리고 해상 화물의 육상 환적, 또는 육상 화물을 해상으로 환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계획됨
- 특히, 운영 구역, 소화 펌프 및 취수해역을 포함한 경계선 길이 324.45m인 부두를 건설하고, 476.32m 길이의 해안 보호 구역을 지정할 계획임

## ■ 터미널 건설 1단계의 연간 예상 총 화물 회전율은 125만 톤임

- 터미널 건설 1단계의 연간 예상 총 화물 회전율은 125만 톤임. 시설설비 계획서는 “발트모르 프로젝트(Baltmorproyekt)”에서 준비했으며, 예산부분은 “피닉스 사(Phoenix)”가 준비함
- 새 부두에서는 화물의 중간 보관 없이 바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임
- 적재량이 308톤인 립헬(Liebherr) LHM 800 크레인으로 대형 중장비 및 컨테이너의 적재 및 하역이 가능할 것임

그림. 볼쇼이 항만 터미널



자료: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ovyy\\_universalnyy\\_terminal\\_poyavitsya\\_v\\_bolshom\\_portu\\_sankt-peterburg.html](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ovyy_universalnyy_terminal_poyavitsya_v_bolshom_portu_sankt-peterburg.html)

### 참고자료

-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ovyy\\_universalnyy\\_terminal\\_poyavitsya\\_v\\_bolshom\\_portu\\_sankt-peterburg.html](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ovyy_universalnyy_terminal_poyavitsya_v_bolshom_portu_sankt-peterburg.html)(2020년 6월 15일 검색)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65)

## 러 원자력 컨 쇄빙선 세브모르푸츠호 겨울·봄 시즌 항해 종료

### ■ 6월 2일 원자력 컨테이너 쇄빙선 “세브모르푸츠” 호가 겨울과 봄 시즌의 항해를 마치고, 모항인 무르만스크 항에 도착함<sup>a)</sup>

- 러시아 국영 원자력 쇄빙선 기업인 로사톰플롯(Rosatomflot)은 6월 2일 원자력 컨테이너 쇄빙선 “세브모르푸츠” 호가 무르만스크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 “세브모르푸츠” 호는 세계 유일한 원자력 컨테이너 쇄빙선으로 3월부터 총 3회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
- 이 선박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선소에서 정박해 도크 수리를 완료한 이후, 다른 쇄빙선의 에스코트 없이 «북극 LNG-2» 프로젝트에 사용될 일반화물을 운반함. 그 후 제믈랴 프란차 이오시과 군도(Franz Josef Land)로 2회의 항해를 완료함

그림. 러시아 세브모르푸치 호 모습



자료: <http://www.morvesti.ru/news/1679/83941/>

### ■ 선원들의 전문적인 업무 처리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공적인 항해를 달성함

- “세브모르푸츠” 호에 탑승한 선원들은 두꺼운 얼음 등 선박 운항 상황이 열악한 세베르나야 만(Severnaya Bay)에서 콘크리트 석판, 컨테이너, 건축 자재 및 자동차 장비 등을 하역함
- 무스타파 카쉬카(Mustafa Kashka) 아톰플롯 대표는 “파트너 기업들은 원자력 컨테이너선 선원들의 전문적인 업무 처리 능력으로 계약상의 의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게 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라고 언급함
- 7월 중순 원자력 컨테이너선 “세브모르푸츠”는 선원 교대 후 북극항로를 다시 항해할 예정임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65)

---

####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news/1679/83941/>(2020년 6월 3일 검색)

## 러 노보로시스크 항,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조치 시행

### ■ 항만터미널·항만청 등 항만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

- 흑해항만관리청은 위생검역관리소와 국가통제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선박 소독 및 방제조치를 취함
- 방역대책 도입 후 항만에 도착한 701척의 선박에 대해 소독 조치를 취했으며, 항만 인근 해역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교통안전 위반사례나 오염사례 또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적발된 사례는 없음
- 노보로시스크 항만 선장관리청은 선박이 항행규칙 위반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5월 노보로시스크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35만 TEU에 달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수치임

- 수출 컨테이너는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약 18만TEU를 기록했으며, 수입 컨테이너는 약 17만TEU로 역시 작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음
- 노보로시스크 항만은 아조프-흑해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99%를 처리하고 있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 참고자료

- <http://www.morvesti.ru/news/1679/83990/>(2020년 6월 16일 검색)
-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porty\\_azovo-chernomorskogo\\_basseyna\\_v\\_yanvare-mae\\_2020\\_goda\\_uvelichili\\_konteynerooborot.html](https://www.korabel.ru/news/comments/porty_azovo-chernomorskogo_basseyna_v_yanvare-mae_2020_goda_uvelichili_konteynerooborot.html)(2020년 6월 16일 검색)

## 러시아,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 피해 확산 막기 위해 총력

### ■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주 노릴리스크(Norilsk)시의 열병합발전소에서 대규모 연료 유출 사고 발생<sup>a)</sup>

- 5월 29일, 북극권과 접한 러시아 노릴리스크시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에서 대규모 연료 유출사고가 발생해 2만 톤 이상의 디젤이 인근 암바나야(Ambarnaya)강으로 유입되었음
- 이번 사고가 일어난 발전소는 세계 최대의 백금 및 니켈 생산 업체인 노르니켈(Norilsk Nickel)사의 자회사 소유이며, 발전소 연료 탱크의 기둥이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올해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로 북극의 동토층이 녹아 연료탱크 주변의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연료탱크에 적정량 이상의 원유를 보관해 무게를 이기지 못해 탱크가 터졌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음

그림.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노릴리스크 지역



자료: <https://www.nytimes.com/2020/06/04/world/europe/russia-oil-spill-arctic.html>

## ■ 러시아 연방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sup>b)</sup>

- 6월 4일 러시아 정부는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별수사위원회(Russian Investigative Committee)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을 결정함
-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암바니아강은 진홍색으로 변했으며, 유출된 기름은 사고 현장에서 약 12km 지점까지 확산하면서 350km<sup>2</sup>의 지역을 오염시켰음
- 러시아 환경 감시국 로스프리로드나조르(Rosprirodnadzor)의 전 부국장 올렉 미트볼(Oleg Mitvol)은 오염을 정화하는데 1천억 루블(약 1조 7400억원)의 비용과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 이라고 언급함
- 비상사태 선포 이후 러시아 정부는 암바니아강과 연결된 파시노(Pyasino) 호수와 북극해의 일부인 카라 해(Kara Sea)로 기름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군을 비롯하여 대규모 방재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 러시아 검찰은 동토층 해빙에 노출된 지역의 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돌입하였으며, 국무부는 기업들의 안전법과 환경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힘

그림. 기름 유출로 진홍색으로 물든 암바나야(Ambarnaya)강



자료: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2941845>

진희권,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hkjin@kmi.re.kr/051-797-4766)

### 참고자료

- a) <https://www.nytimes.com/2020/06/04/world/europe/russia-oil-spill-arctic.html>(2020년 6월 9일 검색)
- b)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2941845>(2020년 6월 9일 검색)





## 주요 통계



표. 2020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지역	11.75 (+1.9%)	6.9 (+2.6%)	18.65	+2.2%
북극해	2.41 (-9.8%)	6.04(-2.6%)	8.45	-4.7%
발트해	9.34(-1.1%)	12.78 (+7.0%)	22.12	+3.6%
아조프-흑해	9.48 (+4.0%)	15.25 (+3.1%)	24.73	+3.4%
카스피해	0.34 (+38.3%)	0.41 (+26.8%)	0.75	+31.6%
합계	11.75 (+1.9%)	6.9 (+2.6%)	18.65	+2.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news/1679/82659/?sphrase\\_id=2939703](http://www.morvesti.ru/news/1679/82659/?sphrase_id=2939703)(검색일: 2020년 6월 10일)

표.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2,053,514.1	507,680.7	2,052,912.6	506,529.5	601.6	1,151.2
광물 제품	416,376.0	72,046.0	416,182.7	72,010.7	193.3	35.3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309,134.8	17,476.6	1,309,134.8	17,476.6	0.0	-
생고무 및 화학 제품	1,247,769.2	16,360.7	1,247,769.2	16,360.7	0.0	0.0
가죽원료, 모피 제품	4,355.8	55,374.8	4,338.0	55,374.3	17.8	0.4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20.6	853.5	20.6	853.5	0.0	0.0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78,582.8	7,077.3	78,467.0	7,032.7	115.7	44.6
금속 및 금속 제품	1,366.5	18,130.0	1,366.5	18,130.0	0.0	0.0
기계류	15,563.0	43,335.9	15,562.8	43,065.3	0.1	270.6
기타	16,190.3	267,986.3	15,919.2	267,214.9	271.1	771.3
합계	211,924.4	25,400.4	211,920.9	25,371.4	3.5	29.0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folder/230467/document/233675>(검색일: 2020년 6월 10일)

표.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냉동어	1	7.1	-	-	1	7.1	-	-	-	-	-	-
연어류	178,025	257,187	466	716	177,983	257,061	466	716	42	126	-	-
넙치	9,971	20,198	-	-	9,929	20,072	-	-	42	126	-	-
가자미	41	177	-	-	41	177	-	-	-	-	-	-
가자미류	2,358	2,340	-	-	2,358	2,340	-	-	-	-	-	-
청어	4,309	4,663	-	-	4,309	4,663	-	-	-	-	-	-
대구	1,771	1,345	-	-	1,771	1,345	-	-	-	-	-	-
명태	8,683	23,897	-	-	8,683	23,897	-	-	-	-	-	-
농어	136,661	170,288	-	-	136,661	170,288	-	-	-	-	-	-
간, 곤이 (어란)	16	115	-	-	16	115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6,662	23,383	-	-	6,662	23,383	-	-	-	-	-	-
생선 필렛, 어육	446	700	-	-	446	700	-	-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0,545	31,095	48	197	10,545	31,095	48	197	-	-	-	-
갑각류	4	83.5	148	924	4	83.5	148	924	-	-	-	-

계류	3,087	53,562	42	246.6	3,087	53,562	42	246.6	-	-	-	-
조개류	2,034	45,661	-	-	2,034	45,661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821	1,808	-	-	821	1,808	-	-	-	-	-	-
수산 무척추 동물	629	1,024	-	-	629	1,024	-	-	-	-	-	-
성게류	138	402	69	254	138	402	69	254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folder/230467/document/230469>(검색일: 2020년 6월 10일)